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의 과제

김 익 한*

1. 머리말
2. 기록학의 범주와 특성
3. 이론과 사료 수집 영역에서의 학제간 협동연구의 과제
4. 맺음말

주제어 : 기록학, 기록학계, 학제간 협동연구, 기록학 범주, 사료수집

1. 머리말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 사료 수집은 그 동안의 주먹구구식 사료수집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기관별 한국사 관련 사료 소장 현황 조사와 연구원 파견 조사를 포함한 사전조사, 소재목록 파악, 장기체류에 의한 집중수집 등의 방식은 수집의 엄청난 규모와 함께 그 체계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분야는 다르지만 최근에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EDMS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기록학 연구』5, 한국기록학회, 2002 ; 「기업기록의 지식자원화를 위한 기초연구」 『기업의 지식경영 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 ;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 제고」 『기록학 연구』7, 한국기록학회, 2003 외 다수.

있었던 고문서 수집과 관리에 관한 심포지엄 역시 주목되는 성과로 볼 수 있다.¹⁾ 종래의 일반적인 관행대로라면 분류나 기술(description)과 같은 전문적 방법론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고문서 분류를 고서 관리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고문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규칙을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사회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었다. 한국사회사학회 주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 내에 장소를 잡아 “국가 기록의 활용과 한국 현대사 연구”를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이는 사회사학계가 연구 자료로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나아가 기록의 생산을 포함하는 과학적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과학계의 기록에 관한 움직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학계와 문헌정보학계는 지속적으로 기록의 문제에 접근을 시도해 왔다. 부산경남사학회가 2002년 경남대학교에서 “역사가를 위한 기록학, 아키비스트를 위한 역사학”이라는 제하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나,²⁾ 1998년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에서 개최한 동계학술발표회에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³⁾

물론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은 기록학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는 각각 기록학 전문학술지를 발간하고, 월례발표회 및 정기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학회 활동

- 1) 한국고문서학회에서는 2002년 6월 8일, 고문서정리 표준화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문서의 분류체계 및 고문서의 정리카드와 기술규칙 등의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2) 부산경남사학회는 2002년 6월 15일, 경남대학교에서 “역사가를 위한 기록학, 아키비스트를 위한 역사학”이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을 역사가와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 3) 이 학술발표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한국 기록보존의 발전 방향’과 ‘기록보존사서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을 전개하고 있다.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각종 번역서의 출간 역시 기록학계의 발전을 잘 나타내주는 표상이다.⁵⁾

그러나 기록과 관련된 그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기록에 대한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 정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주요 행사를 보면, 2002년에 열린 한국고문서학회의 학술행사 이외에는 대부분이 기록의 중요성을 학계와 사회 일반에 환기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각 학문분야에서 기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문적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접근까지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비해 기록학계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발견된다. 최근 기록학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을 보면 기록관리법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나아가서는 기록학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이는 기록학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기록학이 지니는 학제간 협동연구적 측면이 약화되는 문제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기록학 연구의 방향이 기록관리의 세세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은 이러

4)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00년 5월 발족, 2001년부터 반년간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기록학회는 2000년 9월 발족, 반년간으로 『기록학연구』를 8호까지 발행하였다.

5)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8권의 연구보고서와 기록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셀렌버그의 『현대기록학개론』, 미국아키비스트협회의 기록학 기초시리즈를 포함한 15권의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6) 최근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이승역,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한국기록학회, 2001 ; 이소연 외, 『ISAD(G)를 적용한 한국기록물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2 ; 한명근 외, 『기록관리법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 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2 ;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기록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3.

한 의미에서 긍정적 전망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본고는 국내에서 기록학이 시작된 지 벌써 5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기록학의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제간 협동연구의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기록학 교육 분야나 기록학계가 기록학 고유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그 이면에 학제간 협동연구의 특성이나 전체성을 상실해가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인문·사회과학계는 반대로 기록·기록학에 대한 세세한 접근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학계와 인문사학계의 학제간 협동연구에 대한 본고의 문제제기가 다시 한 번 기록·기록학의 참모습을 다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 기록학의 범주와 특성

기록학은 과학적 기록관리라는 현실적 목적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응용학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경제, 사회 모두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이를 회사 경영에 맞게 응용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학은 다양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회사의 운영에 응용하는 학제적 협동연구의 특성을 지닌다. 기록학 역시 과학적 기록관리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학문영역으로부터 방법론적 지원을 받는다. 즉, 기록학은 응용학문으로서 학제간 협동연구의 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⁷⁾

7) 학제적 협동연구의 성격을 지닌 학문에 대해서는 박희종·김익한, 「스포츠기록분석학과 기록관리학의 접점」 『한국스포츠기록분석학회지』 제1권 제1호, 2003, 67~68쪽 참조.

모두 알다시피 기록학은 기록관리론, 기록보존론, 기록사료 인식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⁸⁾ 기록관리론은 기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법론을 연구하는 영역이고, 기록보존론은 가치 있는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물리적 보존 방법 및 훼손 기록의 복원 등을 연구하는 영역이며, 기록사료 인식론은 이렇게 보존된 기록의 내용과 기록간의 맥락관계를 인식하여 사실을 복원하고 지식을 재생산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기록학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 차원에서 볼 때, 기록관리론은 기록관리 기법의 측면에서는 정보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기록관리기관 운영이나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경영학과 관련되며, 컴퓨터를 활용한 기록관리의 측면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기록보존론은 박물관의 유물보존학이나 인쇄학, 더 근원적으로는 화학, 생물학 등과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록사료 인식론은 역사학 내의 사료학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학은 응용학문으로서 기본적으로 학제간 협동연구의 특징을 지니며, 기록학을 구성하는 각각의 영역 역시 관련되는 다양한 학문영역과의 긴밀한 관계 구조 내에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학제간 협동연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방법론적 성격이 강한 기록관리론의 기본적인 이론 체계는 역사학의 사료 인식론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전통적인 기록관리론에서는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계층적 관리,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 집합적 기술의 원칙을 강조하여 왔다.⁹⁾ 이들 원칙은 기본적으로 기록이 공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8) 安藤正人, 『記録史料學と現代』, 吉川弘文館, 1986 참고.

9)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Fredric. M. Miller, *Arranging and Describing*

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의 행위 반영성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공적 행위는 단지 한 사람에게 의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 또한 공적 행위는 조직 내의 타 행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타 부서가 수행하는 기능과 함께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행위가 관계 구조 속에서 여러 층위로 구성되므로, 행위를 반영하는 기록 역시 계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일회적 행위를 전후 맥락 없이 일면적으로 이해해서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고가 계층적 관리 원칙의 근거에 깔려 있다.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을 출처와 생산 시점에 형성된 원질서에 입각하여 분류하고 관리함으로써 일련의 행위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다는 데서 온 것이다. 집합적 기술의 원칙 역시 상호관련성이 깊은 기록 덩어리의 맥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기록 이용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어 왔다. 결국 기록관리론의 기본은 기록이 만들어진 원 행위의 질서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관리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보면 기록관리론이 정보학의 분류, 기술론과는 내용적으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정보학에서의 분류, 기술론은 인간 인식의 분류학적 구분 방식, 문자로 표현된 인간의 인식을 표준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록의 분류와 기술은 이와는 사뭇 달라 인간 행위의 특성과 구조를 살린 분류와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큰 틀에서는 분류와 기술이라는 정보학적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1992,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33~51쪽 참조.

있다는 것이다.

의외의 결과이지만, 사실 기록의 분류, 기술론은 사료학의 사료구조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료구조론은 사료가 반영하는 사실 혹은 과거의 행위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성립되었다. 사료구조론에서는 먼저 동일한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사료를 구분하고, 이들 사료 가운데 동일한 행위 구조 속에 있는 것을 그 하위로 구분하여 그들 간의 맥락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실과 행위를 재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관리론에서 말하는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집합적 기술의 원칙은 각각 사료구조론에서 동일 주체, 동종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법, 사료간의 맥락관계를 파악하여 사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조응한다. 결국 기록관리론은 정보학의 방법론을 차용함과 동시에 사료학의 원칙을 결합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이 높은 협동의 밀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록의 분류, 기술 방법론은 정보학의 분류, 기술론을 단순 차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학과 사료학의 방법과 원칙을 잘 합성하여 기록에 적합하게 재창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SAA에서 발표한 기록학 교육 가이드라인(2002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에서 점차 기록학의 핵심 지식 영역을 강조하는 경향은 이러한 기록학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¹⁰⁾ 이런 의미에서 기록학이 역사학에 더 가깝다느니 문헌정보학에 더 가깝다느니 하는, 기록학 형성 초기 단계에 있었던 논의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학은 어느 학문에 더 가까운 그런 성격의 학문이 아니라 유용한 학문적 방법론을 복수로 차용하여 기록에 걸맞게 재창출하는 특성을 지닌 학문이다.

10) SAA에서 발표한 교육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김익한,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 제고」 『기록학연구』 7, 2003, 141~142쪽 참조.

현대 기록학의 발전은 기록학의 특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자적인 기록 처리방식의 발전과 전자기록의 발생 등은 기록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기록관리론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¹¹⁾ 기록관리론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기록 연속체론을 통해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기록관리론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론에 입각하여 특히 기록사료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최근의 기록관리론은 기록 연속체론에 따라 생산시점부터의 통합적 관리론의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발전된 이론은 전자기록의 관리, 기록의 전자적 관리를 전제하고 있으며, 기록학은 컴퓨터 공학과의 관련성이 보다 밀접해지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생산시점부터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미 마련된 분류체계, 평가표준, 기술표준(메타데이터 표준)에 따라 기록의 생산 시에 기록관리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기록관리론은 기록 생산기관에서의 이용과 가치 평가가 종결된 기록사료를 대상으로 전개됨으로써 분류 등의 관리 행위도 조직적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 연속체론에 의해 생산시점에서부터 기록이 관리되는 측면이 강해짐에 따라, 평가 등의 처리기준이 사전적(事前的)으로 마련되어 관리시스템에 탑재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자세히 소개되기 시작한 호주시스템에서 잘 체현되고 있다.¹²⁾ 호주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능분류체제(BCS:

11) 전자기록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익한, 「EDMS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기록학연구』 5, 2002, 3~37쪽; 이상민, 「전자기록물의 관리원칙: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13, 2000, 119~144쪽 참조.

12) 호주 시스템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승억, 「호주의 공공기록관리 전략: 동적기술(dynamic description)」 『기록보존』 15, 2002; 안수현, 「기록물 검색도구를 위한 출처정보 조직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2; 김익한, 「DIRKS-Manual의 실용적 적용」 『기록학연구』 8,

Business Classification Scheme)나 평가표준(DA: Disposal Authority), 기능시 소러스 등은 전통적인 기록관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록학의 특성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기본 체제를 구축할 때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업무과정분석(Process Analysis) 등의 방법론이 채택되며 또한 평가표준의 작성에는 위험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들 방법론은 대체로 경영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 체제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은 시스템 공학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표준으로 사용되는 DIRKS의 8단계는 시스템 공학에서의 시스템 개발 방법론과 일치한다.¹³⁾

지면 관계상 상론은 피하지만, 기록관리론뿐만 아니라 기록사료 인식론 역시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특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록사료 인식론은 사료학과 거의 일치하는 영역으로, 특히 사료 선택이나 해석의 방법론이 다양화되면서 협동연구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기존의 제도사, 정치사적 차원에서의 기록사료 인식론과 사회사, 생활사, 심성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록사료 인식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기록사료 인식론은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과의 학제적 협동연구의 특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록관리론, 기록보존론, 기록사료 인식론으로 구성되는 기록학은 학제적 협동연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협동연구란 단지 다양한 학제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록학은 학제간 협동연구 가운데서도 협동의 밀도가 높다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학은

2003 참조.

13) DIRKS와 시스템 공학과의 친연성에 대해서는 김익한, 「DIRKS-Manual의 실용적 적용」 참조.

관련성이 높은 정보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시스템 공학 등의 단순한 산술적 합이 될 수 없다. 기록학은 말 그대로 밀도 높은 학제간 협동연구를 통해 새로이 창출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응용학문 분야이다.

3. 이론과 사료 수집 영역에서의 학제간 협동연구의 과제

학제적 협동은 적어도 기록학의 기초 형성기에 해당하는 근 몇 년간은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협회, 기록학회, 기록관리학회 등의 성립 과정에 역사학, 문헌정보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였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이는 기록학이 지니는 학제적 협동연구의 특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차원에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간 우리 사회의 기록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 학문 분야 스스로의 노력이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학회의 구성과정에서의 높은 참여도는 개별 학문 분야의 ‘산술적 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기록학이 지니는 협동의 밀도에 비한다면 이러한 ‘산술적 합’의 수준으로는 기록학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간의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기록학 형성 초기 단계에서 잘 이뤄졌던 협동은 구체적인 기록학의 이론 연구 측면에서는 발휘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기록학 전문 연구자들 일부와 기록관리기관 재직자를 제외하고는 타 학문분야에서의 전문 연구자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잡지인 기록학 연구나 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글들은 역사학 혹은 문헌정보학에서 기록학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연구자들과 정부기록보존소의 학예연구직

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기록학을 전공한 신진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기록관리와 기록학 발전을 위한 기초 축성에는 각 학문분야의 협동이 잘 이뤄졌지만 정작 기록학 이론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학제적 협동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밀도 높은 학제적 협동연구를 요구하는 기록학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기록의 평가선별론에서 이러한 측면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평가선별론은 주로 쉘렌버그(T. R. Schellenberg) 등에 의해 정립된 가치론에 입각하고 있었다. 가치론은 사료학에서 말하는 사료비판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록의 진실성이나 회소성, 그리고 기록 속에 담긴 내용의 역사학적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평가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역사학적 접근이 가능한 사람에 의해 기록의 평가 선별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또한 평가선별의 실무적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평가선별의 이론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록학 영역에서의 평가선별론이 사료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서화전략론(Documentation Strategy)은 말 그대로 밀도 있는 학제적 협동연구를 요구한다. 문서화전략론은 기본적으로 기록 속에 담긴 내용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록사료 인식론적 개념과는 달리, 기록을 생성한 원천인 인간행위의 구조와 가치 서열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기록을 선별하는 개념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¹⁴⁾ 따라서 문서화전략론에서는 필

14) 대표적인 문서화 전략론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Archivaria* 24, 1987, pp.69-107 ; Hellen W. Samuels,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 1986, pp.109-24 ; Richard J. Cox,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1994, pp.11-36 ; Terry Cook, "Documentation

수적으로 인간 행위 및 인간 행위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게 된다. 문서화전략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보스(Hans Booms)는 사회에 대한 분석방식으로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과정론을 제시하고 있다.¹⁵⁾ 물론 사회과정론 역시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니므로 인간 행위와 사회 그 자체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동원되어야 한다. 결국 문서화전략론에 입각한 기록 평가선별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분석방법이 협동연구의 방법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호주 시스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평가선별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기준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록 생산 기관의 기록과 관련된 다각적인 요구 분석과 위험 분석 등의 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호주 시스템에서의 평가론은 기록학 그 자체보다는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요구분석 및 위험분석의 방법론을 기록관리 영역에 충분히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록학 이론 연구에서 점차 더욱 밀도 높은 차원의 학제적 협동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학계에서 학제적 협동연구의 진전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기록학 이론 연구가 몇몇 연구자를 중심으로 상당 수준 진척되었지만 본격적인 발전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예시한 문서화전략론의 경우, 문서화전략론의 논리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소개하는 수준까지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

Strategy." *Archivaria* 34, 1992, pp.181-91.

15)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Archivaria* 24, 1987, pp.69-107.

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행위나 일정 집단의 행위 집합, 혹은 사회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이 학제적 협동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이 진척되지 않음으로 인해 문서화전략론 연구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록학 형성 초기 단계에서 이미 각 학문분야가 기록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록을 소재로 한 여러 시도들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 학문분야에서는 아직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기록관리의 사회적 정착을 제언하는 차원의 연구들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는 그러한 시도들이 오히려 의미가 반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의 이용에 대해서조차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근대사 연구분야에서는 조선총독부 출간물 또는 간행물과 기록을 구별하지 않고 논문 전개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이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기록류인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연구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개선되리라고 낙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록학이 형성,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자와 기록이 별다른 구별 없이 역사 논문들 속에 함께 인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조적(浮彫的) 자료 이용에 대한 비판이 이미 수십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은 역사학계에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보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또한 기록학 분야와 여타의 학문 분야와의 소통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제적 협동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반

드시 넘어야할 장애이다. 특히 사료의 수집 및 정리 사업 분야에서 그러하다. 사료의 수집과 정리아말로 기록학의 성과에 따라서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임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을 필두로 하여 각종 기관에서 사료의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제적 협동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직도 그저 관행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록학 기본 이론에서 기록 사료의 수집은 적어도 다음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기관의 수집 정책에 따라 수집 대상 영역을 설정한다.
- 2) 대상 영역이 무엇이든, 장소나 시기, 사건이나 조직임에 관계없이, 문서화전략론 등에 입각하여 대상 영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 3) 예산을 포함한 수집 기관의 상황조건을 고려하여 거시적 차원의 수집 계획을 수립한다.
- 4) 조사 연구의 결과로 파악된 잠재적 소장자를 수집 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지 조사한다.
- 5) 실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록 소장자 리드(leads)를 개발한다.
- 6) 소장자와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소장 기록에 대한 직접 조사의 기반을 마련한다.
- 7) 다수의 소장자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 총체를 조사한 후 이를 평가한다.
- 8) 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 9) 소장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집 방법 및 일정을 정한다.
- 10)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 대상 기록을 이송하고 소유권 양도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

11) 수집 시에 파악된 정보를 관리 정보로 전환한다.¹⁶⁾

지역의 사료조사위원회나 고서점, 또는 중가 등을 대상으로 수집을 진행하는 것은 일견 편리할지 모르지만, 기실은 대상 영역의 기록사료를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기록학적 수집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요한 기록의 누락과 불필요한 기록의 마구잡이 수집을 초래하기 일췌이다. 기록학과 역사학 간의 밀도 있는 협동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사료 정리 측면에서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상당량의 기록사료를 포괄하고 있는 역사통합검색시스템에는 기록류와 책자류조차도 구분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분류체계가 채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술표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제적 협동연구의 중심축의 하나인 역사학조차 이렇다면 타 학문분야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록학 형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던 타 학문분야의 초기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드러나는 학제적 협동연구의 실상은 이와 같다. 이제 기록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가와 사회를 향해 당위론만을 외칠 시기는 지났다. 학문 분야를 포함하여 사회 각 영역에 제대로 된 기록관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위론을 외쳐야 하지만, 지금은 단지 당위론뿐만 아니라 학제적 협동연구를 통한 구체적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16) 기록 사료의 수집 원칙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1992,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77~142쪽 참조.

할 때이다.

4. 맺음말 - 학제간 협동연구의 진전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기록학은 학제적 협동연구로서의 특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관련 학문 영역과 구체적 차원에서의 협동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기록학 이론의 기반이 서서히 마련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실질적인 학제적 협동연구가 진전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글의 결론에 대신하여 협동연구의 진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해두려고 한다.

- 1) 우선 기본 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과 관련된 학문분야에서 기록에 관한 연구가 해당 학문 내부의 중요한 연구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기록학이 일부 기록학 전문 연구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각 학문분야별로 기록 이용의 과거와 현실을 정리하고 해당 학문 분야에 어울리는 기록 이용의 방법론을 연구해야 한다. 학문분야별 정리는 학제적 협동연구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심포지엄이 이러한 정리 작업의 첫 출발일 수 있다)
- 3) 기록학 이론 영역에서 구체적인 협동연구의 필요가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학회 등의 협력을 얻어 학제적 협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능분류표 작성 방법론 구축을 위해 기록학, 정보학, 역사학, 경영학, 시스템 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제적 협동연구를 조직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록학 분야의 각 학회는 기록학 이론의 진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학제적 협동연구의 과제들을 정리해 내야 할 것이다.

- 4) 기록 수집기관, 고문서 연구기관 등과 기록학계의 협력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기록학계는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치우치고 있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의 기록사료 관리 분야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 연구에서 얻어지는 방법론을 기록 수집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방법론적 탐구를 위한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수집 및 관리방법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회의를 조직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5) 기록학회 등에 관련 학문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주로 역사학, 문헌정보학에서 기록학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일부 연구자들만이 기록학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정착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학제적 협동연구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관련 학계의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5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 기록학의 기본을 만들어 가는데 소요되었다. 기본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의 특성을 재차 점검해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실질적 협동연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해보는 것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회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무런 결실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이 글은 학제간 협동연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 작업의 하나일 뿐이다.